이중언어 유·초·중·고등 교육기관

SICA 입학설명회

일시: 4월 20일(수) 오후 4시
장소: SICA(서초구 양재동 363)

양재캠퍼스: 유·초·중등 과정 (모집대상: 유치원–7학년)
여주캠퍼스: 고등 과정 (모집대상: 8, 9학년)

- SICA는 성품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따르도록 교육합니다.
- SICA는 모든 과목을 역사 중심으로 통합하여 살아있는 책으로 교육합니다.
- SICA는 국어, 천자문, 영어, 라틴어, 헬라어 수업을 통해 동서양의 언어 기초를 교육합니다.
- SICA는 논리적인 사고와 토론을 통해 논증하고 변증할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SICA는 자신의 생각과 개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과 글로 표현하도록 교육합니다.
- SICA는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교육합니다.

입학상담 02.557.7710 | *www.sicakorea.org*
(사전예약 바랍니다)

비판적 정치참여

종교와 정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들이고 그 둘은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해 왔다. 지금도 그 둘의 관계는 항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년에 치러질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에도 종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서 16세기 종교개혁만큼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드물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그 끝에 맺어진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평화조약(1648)으로 신성로마 제국이 종말을 고하고 민족 국가들이 일어났으며, 1655년에 맺어진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 평화조약에서는 정권이 종교를 결정하는 (cuius regio, eius religio, "누구의 통치, 그의 종교") 원칙이 만들어져서 후에 유럽교회가 식민지 지배를 묵과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자들의 가르침이다. 중세의 천주교는 은혜와 자연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한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자연 영역에 속한 국가의 독자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박해를 소극적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 반면, 당시의 일부 재세례파 급진주의자들은 국가의 권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루터와 칼뱅은 그 중간 입장을 택했다 할 수 있다. 그들이 모형으로 채택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이론이었다. 당시의 교회가 믿었던 "기독교적 로마"(Roma Christiana), "영원한 로마"(Roma aeterna)란 망상을 비판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 혹은 악마의 도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따르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도 땅의 일에 참여하여 "상대적인 선"을 이룩하려 노력해야 하고, 이 세상 나라도 교회를 위하여 우상숭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유산을 이어받아 루터와 칼뱅은 "두 왕국" (two kingdoms) 혹은 "두 영역" (two realms) 이론을 제시했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다. 국가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만 그 통치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가 국가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교회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두 왕국 이론"에 대한 두 개혁자의 관점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루터는 교회가 국가의 영역에 전혀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정치에는 비교적 무관심하고 수동적이었다. 그와는 다르게 칼뱅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가 완전히 중립적이고 독자적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교회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국가가 정의롭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칼뱅 자신도 제네바 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자신의 그런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전적부패를 심각하게 취급했으므로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아직도 왕권신수설이 일반적이었던 그 시대에 혁명적인 입장을 취했다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수동적인 루터의 입장은 결국 나치 정권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칼뱅의 다소 능동적인 입장은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사회복음"(social gospel) 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오해를 받기까지 했다. 즉 교회의 역할은 정치, 사회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를 변혁(transform)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정치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카이퍼(Abrahma Kuyper)의 소위 신칼빈주의도 일종의 사회복음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록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보다는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칼뱅도 두 왕국 이론에 동의했고 그의 입장을 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나 정치의 목적은 악을 억제하는 것이지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통치로만 가능한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국가 혹은 정치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칼뱅이 왕정보다는 귀족주의나 민주주의를 선호한 것은 민주주의가 왕정보다는 정치권력의 부패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부패는 반드시 사회정의를 파괴하여 약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모든 시민이 원하든 말든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 잘못되어 부패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정의가 파괴되어 약한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되 어떤 형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현실과 정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정치가 성숙하고 질서가 잡힌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권력을 얻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의무가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 기독교 정당이 조직되어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정치적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에서는 비도덕이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는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조직하고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한다는 것은 곧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에 해만 끼칠 뿐이다. 거기다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책임 있는 정치를 주도할 만한 능력과 성숙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치와 한국 기독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지기 전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참여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비판적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치권력의 부패로 악이 극심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효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계간 강원랜드『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효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APRIL · 2016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WORLDVIEW

2016년 4월호 WORLDVIEW 통권 190호

표지인물 존 낙스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진제공 권태경
일러스트 김규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 이 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이매거진 m.worldview.or.kr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전 그 시대로 가보자.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 그들이 숨쉬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월드뷰에서 한 사람씩 만나보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자,

– 존 낙스 –

권태경 (총신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이사)

*우리는 늘 주변 사람을 의식한다.
나는 요즈음 교회에서 산상수훈을 주제로 설교를 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의 문제점을 염려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과장하여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숨기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자랑의 유혹을 받을 때, 숨기는 것이 신앙의 인격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으로 독일의 마틴 루터와
프랑스의 존 칼빈에 비해 국내에 덜 알려진 인물인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
그는 일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간 산 개혁자였다.*

낙스가 처음 설교자로 초청받은 **세인트 앤드류 성**

필자가 1995년 세인트앤드류 대학으로 유학을 간 이유는 바로 낙스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서였다. 루터나 칼빈과 달리 낙스는 신학자보다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교회 개혁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 개혁자였다. 낙스의 서신을 읽어 보면, 격동의 시기에 교회 개혁을 꿈꾸던 낙스의 체온이 전해지는 느낌이 든다. 낙스에 비하면 루터와 칼빈은 비교적 평온한 상황에서 개혁 활동한 셈이다. 낙스는 개혁 초기부터 임종시까지 낙스의 일생은 시련과 격동의 연속이었다.

>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요한복음 17장의 한 구절도, 낙스는 1572년 11월 24일 죽음을 앞두고 아내의 음성을 통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남아 있는 스코틀랜드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다.

낙스는 누구인가

스코틀랜드 개혁가 존 낙스는 1514년 하딩톤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인트앤드류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로 임명되었다.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개신교 신앙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의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작된 상태였다. 유럽의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미신적인 교리,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성적인 타락 등에 반발하였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었지 카톨릭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반란이나 혁명이 아니었다.

사제로 임명된 낙스는 어거스틴의 저술을 접하면서 카톨릭 교리의 모순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낙스를 개신교 신앙의 지도자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존경하던 개신교 지도자 조지 위샤트의 순교였다. 낙스는 위샤트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보여 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스코틀랜드에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스코틀랜드는 카톨릭 이외에는 어떤 교회도 허용치 않는 종교적 탄압이 극심한 나라로 그의 개혁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더욱이 그가 추종하며 따르던 지도자 위샤트가 순교하고,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미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어려운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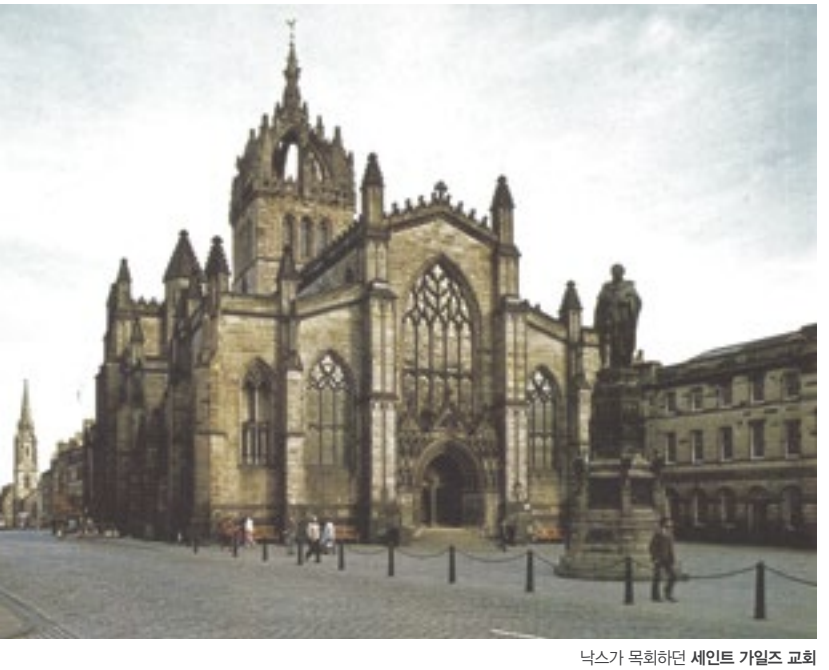
개신교도들 탄압한 **데이빗 비튼 추기경**

당시 개신교 신앙을 탄압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추기경 비튼이 1546년 5월에 살해되자, 이 비튼의 살해 혐의가 개신교들에게 향하면서 박해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인트 앤드류 성으로 피신했다. 이때 낙스는 이들에게 설교를 요청받고 그 성의 목회자로 부임한다.

세인트앤드류 성에서의 목회로 그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 카톨릭주의자들은 그의 사역을 묵인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안의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고자 당시 스코틀랜드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프랑스와 협력하여 개신교도들을 포위하였다. 카톨릭 교회가 승리했고 개신교도는 패배했다. 낙스를 비롯한 개신교도들은 19개월 동안 프랑스의 노예선에 감금되어 고된 홍역을 치루었다. 노예가 된 낙스와 개신교도들은 미사를 강요당하며 카톨릭 신앙으로의 개종을 강요받았다. 낙스는 포로에서 석방된 이후에 더욱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다. 프랑스 노예선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찾아온 두 번째 큰 시련이었지만, 이로 인해 그의 소명 의식은 더 확고해졌다. 노예선에서 카톨릭 교회의 우상숭배와 교리적 탈선, 카톨릭 교리의 지나친 선행 강조가 복음의 진리를 오히려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스의 강한 집념은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1550년 스코틀랜드와 유럽의 정세가 개신교인들에게 불리해지자 이에 개신교 지도자들은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프랑스의 칼빈과 베자 불링거 등은 유럽의 망명지(제네바)에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망명지는 신앙의 자유를 원하던 유럽 개신교도들의 집합 장소였다. 이들에게는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했고, 유럽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조국을 떠난 피난민들을 위해 설교자이자 지도자로 낙스를 초빙했다. 낙스는 조국 스코틀랜드의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이들 개신교 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개혁 신앙의 원리를 체계화시켜 나갔다. 낙스가 노예선에 감금되었을 때, 그의 석방을 위해 애쓴 영국의 서머셋 공작의 영향으로 낙스의 첫 망명지는 영국이 되었다. 영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낙스는 주교들과 심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의 일관된 주장은 예배와 교리에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을 적용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며 우상숭배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왕 튜더 메리가 신교도들을 이단으로 몰며 종교 탄압을 감행하자, 낙스는 1554년부터 프랑스의 디에페, 스위스의 제네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낙스가 개신교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만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과 인간이 의에 이르는 수단은 오직 믿음에 의한다는 것이었다. 낙스는 피난민들에게 자신의 설교하면서 카톨릭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이러한 비판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지만 낙스의 각오는 대단했다. 장모에게 보내는 글에 "제가 빈곤이나 망명 생활로 고난받는 것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군병으로 만드십니다"라고 하였듯이, 낙스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주의 사자임을 느끼고 있었다.



낙스가 목회하던 **세인트 가일즈 교회**

하나님의 나팔수, 낙스

1559년, 낙스는 망명 생활을 마치고 조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권 다툼의 장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려고 스코틀랜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의회도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 있었으므로 불안한 시기였다. 낙스가 귀국한 후 세인트앤드류를 개혁하려 하자 대주교는 병력을 동원하여 낙스에게 "당신이 만일 앞으로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낙스는 단호히 주교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므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후 낙스는 세인트 가일즈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그의 설교는 수백 개의 나팔을 부는 소리만큼이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낙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의 조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이런 이유에서 낙스에게 붙여진 별칭이 '하나님의 나팔수'였다.

다행스럽게도 망명 이후 스코틀랜드의 상황이 영국의 도움으로 급변하여 이전보다는 목회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개혁 신앙을 위한 순교의 피가 밑알이 된 것이다. 개혁 신앙의 여파로 의회 내 귀족들의 개신교로의 회심과 일반 대중들의 개신교로의 전향은 그의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개신교 신앙을 법적으로 인준한 것과 낙스가 기초한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가 채택된 사건이었다. 스코틀랜드 개혁의 열매인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는 1560년 낙스를 포함한 6명의 목회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성했는데, 이 고백서는 어떠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진정한 교회는 첫째 말씀을 바로 설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둘째 성례를 바로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셋째 교리를 바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수만명의 군대보다 낙스의 기도와 설교를 두려워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스의 조국 개혁은 쉽지 않았다. 낙스에게 닥친 세 번째 시련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귀국이었다. 메리는 프랑스 왕이었던 남편 프란시스가 죽자 프랑스로부터 귀국한 것이었다. 메리의 귀국이 낙스에게 위협이 된 것은 분명하였다. 메리는 개신교도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낙스와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에게 메리의 귀국은 비극이었다. 메리가 귀국하던 날 낙스는 "하늘도 메리의 귀국을 슬퍼하였으며 그녀가 귀국한 후 이틀 동안 햇빛을 볼 수 없었다"라고 회고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는 메리 정부의 시도는 낙스와 마찰을 일으켰으며, 자연히 종교적 분쟁을 심화시켰다.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불신하는 「여성 통치자에 대한 첫 번째 나팔」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녀의 통치를 비판했다. 메리가 낙스에게 "백성들이 왕에게 저항하며 반기를 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낙스는 "만일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 자식을 살해하려고 하면, 자식들은 힘을 모아 무기를 들고서라도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군주도 자신이 행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면,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메리의 종교적 탄압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피력한 그의 대표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1567년, 메리 여왕이 죽은 후 제임스 6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스코틀랜드는 한동안 평화로웠다. 1560년에 의회에서 인준한 개신교도들을 위한 신앙 자유의 입법 조치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는 낙스에게 큰 빚을 진 것이다. 낙스는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고, 즉 종교개혁을 이룩했으나 육체적 질병이 그를 덮쳤다. 낙스의 죽음은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개신교 신앙을 수호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이자 슬픔이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낙스는 1572년 11월 24일 에딘버러의 집에서 그의 일생을 마쳤다. 에딘버러 사람들이 낙스의 임종 전에 말씀을 듣고자 교회 옆 사택(낙스 하우스)에 모여들었다. 바람이 추운 겨울날 낙스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전까지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을 전하다가 낙스는 임종을 맞이한다. 낙스는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 말씀의 나팔수였다.

장례식에 모여 든 군중들 앞에서 새 섭정자 모튼은 다음과 같이 애도했다.

> *"여기 이 세상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가 누워 있다."*

낙스가 오늘에 말하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종교개혁자 낙스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

먼저 낙스는 자신의 개혁을 말하면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다. 낙스는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섭리에 의지하였다. 그의 삶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였다. 이 시대에 기독교 사관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습관적으로 섭리를 말하는 사관이 아니라, 낙스처럼 실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낙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 예언자적 소명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이 분명한 소명이 낙스를 용기있는 개혁자로 만든 것이다. 그의 선지자적인 역사의식과 소명감은 낙스의 중요한 개혁 원리였다. 낙스의 사상이 급진적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지만, 낙스의 교회 개혁을 향한 용기와 강한 소명감이 부럽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낙스의 개혁에서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보게 된다. 개혁을 성취한 낙스는 먼저 동료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후, 이를 예배와 신앙의 규범으로 채택하였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신학과 신앙의 위기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한 신앙고백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성경적인 신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침례교회가 있지만, 장로교의 신앙고백과 감리교와 침례교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회 내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교리 공부는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 내에 영적 부흥과 성장의 대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교리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주일 예배 전에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며, 교인들에게 신앙고백에 필요한 교리 모범을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권태경 기독교학문연구회 역사분과장이자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존 낙스를 전공하여 종교개혁사를 가르치고 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연구소와 미국의 칼빈 대학에서 종교개혁사 연구 교수를 역임하였고, 지금은 사당동에 문화사역으로 카페사역(와우카페)을 하고 있다.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an Torrance가 Christian History 46(1995)에 기고한 글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요람 **세인트 앤드류 도시 전경**

1. 스코틀랜드의 교회사와 신학 사전(Niegel Cameron ed.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and History and Theology, IVP, 1993).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교회사와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방대하고 유익한 자료이다.
2.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스코틀랜드의 16세기 교회와 사회(Ian Cowan, The Scottish Reformation, St Martins, 1982). 스코틀랜드 개혁의 사회적 배경을 잘 설명하는 책이다.
3.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Gordon Donaldson, The Scottish Reformation, Cambridge, 1972). 이 책은 오랫동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의 가장 대표적인 입문서였다.
4. 개혁의 유형(James Kirk, Patterns of Reform, T. &T Clark, 1989). 이 책은 종교개혁의 배경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당대 문헌을 방대하게 인용한 권위 있는 작품이다.
5. 스코틀랜드의 왕, 교회, 사회 1470-1625(Jenny Wormald, Court, Kirk and Community, London, 1981).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정치와 사회의 맥락에서 명쾌하게 다룬 간결한 책이다.

낙스의 생애와 사상

1. 낙스의 사상 연구: 스코틀랜드 개혁의 신학과 혁명(R. Greaves, Theology and Revolution in the Scottish Reformation, Christian Univ, 1980). 낙스를 여러 방향으로 살피면서 낙스가 가장 혁신적인 개혁자 중 하나였음을 드러내는 책이다.
2. 낙스의 사상(R. Kyle, The Mind of John Knox, Coronado, 1984). 이 책은 낙스의 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다룬 책 중 하나이다.
3. 칼을 찬 사람(Steward Lamont, The Swordbearer: John Knox and European Reformation, Hodder and Stoughton, 1991). 대중이 낙스라는 인물에게 관심을 갖게 한 책으로, 낙스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 낙스(Eusacy Percy, John Knox, Hodder and Stoughton, 1937, 1964).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낙스의 자서전이다.
5. 하나님의 나팔수(W. Standford Reid, Trumper of God, Baker, 1974). 낙스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을 반대하는 책이다.
6. 낙스(Jasper Ridely, John Knox, Oxford,1968). 낙스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방대한 개괄서이다.
7. 낙스(Henry Sefton, John Knox, Edinburth, 1993). 낙스의 자서전으로 낙스 입문서로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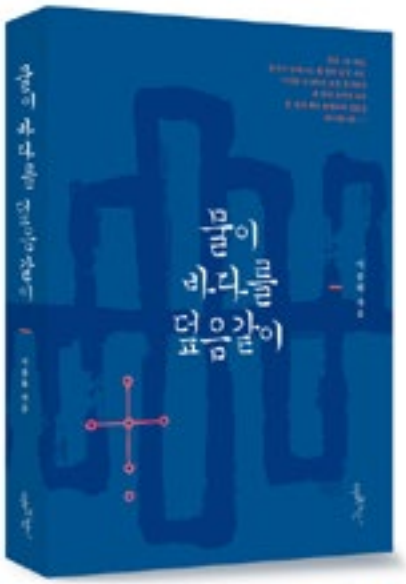
낙스의 작품

1.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W. Croft Dickinson (ed), John Knox 's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2권, 1950). 낙스의 주요작품 1차 사료집
2.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C. J. Guthrie ed,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Religion within the Realm of Scotland Written by John Knox, Banner of Truth Trust, 1898, 1982). 낙스의 작품을 350페이지로 요약한 자료
3. 낙스 전집(David Laing ed, The Works of John Knox 6권, Edinburgh, 1846-64). 낙스의 작품과 서신을 총제적으로 모은 사료집
4. 낙스와 반란(Roger Mason ed John Knox and Rebellion, Cambridge, 1994). 낙스의 사상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모은 소책자.

신인(神人)을 통한 구속의 메시지, 《주역》에 담긴 비밀이 드러난다!

한 권의 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음모, 살인 그리고 사랑

치밀한 구성, 꼼꼼한 시대 연구가 돋보이는 야심작!
현직 경제학 교수가 집필한 웰메이드 역사추리물!



이종화 지음
A5변형
296면
14,000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경종 1년(1721년) 여름, 한 스승 밑에서 《역경》을 배우던 네 친구가 있었다. 그중 연행 길에 오른 두 친구가 프랑스인 신부를 만나 낯선 책을 한 권 받아 온다. 그 책은 《역경》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책 출간을 의뢰받은 책 거간꾼이 코가 베이고 가슴에는 열십자가 새겨진 모습으로 살해를 당하고, 경전을 인쇄하고 반포하는 교서관 관원은 손목과 발꿈치가 잘린 채로, 함께 공부하던 네 친구 중 한 명은 이마에 '邪'(사) 자가 새겨진 주검으로 발견된다. 사건을 추적하는 포청 종사관은 세 번의 살인은 모두 《서경》의 오형(五刑)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밝혀내는데…….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남은 세 친구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T. 333-5161 http://www.hsboo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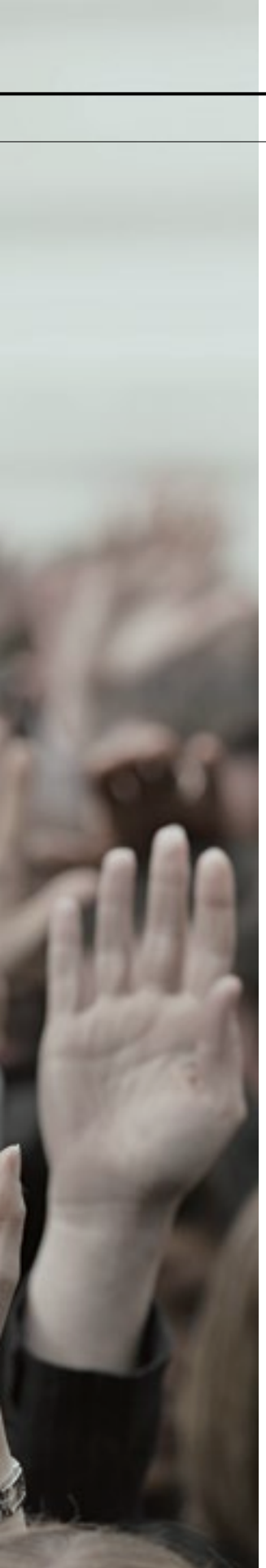
WORLDVIEW SPECIAL

정치는 단순한 도덕적 열심만을 가지고 일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농장을 관리하는 그 이상의 일이다.
정치는 일평생을 바치는 헌신과 인내와 성실과 매일의 세세한 사건들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_짐 스킬렌 James Skillen

우리는 기독교적 정치를
어떤 일련의 윤리적 명령이나 현재의 특정한 정당 혹은 정책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정당들이 지니는 많은 정책에 후원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정당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시급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주는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분별력입니다.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단지 성경 본문 몇 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종합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원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_폴 마샬. Politics Not Ethics 중에서 발췌



공천싸움과 기독 지성인

최악의 공천이라는 20대 국회위원 공천을 보며, "비전(묵시)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잠언(29:18) 말씀이 생각난다. 세계는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무런 철학과 비전이 없이 실리를 찾아 이리 저리 정당을 옮겨 다니는 정치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선진국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대구경방사포를 발사하면서, 70일 전투니 서울해방작전이니 하면서 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면 인공지능이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 두려움이 앞선다. 이렇게 한국은 지금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점이다. 19세기에 사회비평가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는 도래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불안을 "하나는 이미 죽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태어날 만큼 힘이 없는, 두 세계에 끼어있는 처지"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지금 한국에 더 잘 어울린다. 북한이 어디로 튈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해야 할 것인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 가려져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저성장 시대의 위험, 머지않아 현실화될 자동주행 자동차 등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실업자 폭발, 또한 고령인구 과잉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 생명공학이 야기하는 수많은 윤리도덕적 문제 등은 철학과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죽음연구의 예를 들어보자. 현대판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레이 커즈와일은 『The Singularity is Near(특이점이 온다)』에서 인류가 2045년이 되면 영원불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공상과학자의 헛소리가 아니다. 이는 타임지(2011. 2. 21일자)에서 커버스토리로 다루었고, NASA와 구글은 싱귤레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저서로는 『제도의 힘』,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시장인가 정부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러티 대학을 세워 그를 초대총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구글은 생명기술연구를 위한 칼리코Calico라는 연구소를 세워 노화와 죽음극복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이베이, 오라클, 넷스케이프 등 실리콘벨리의 기업들은 유전자공학, 생명연장, 죽음극복 등에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 인간은 '신이 된 동물'이라고 하며, 머지않아 인류는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적 입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지도자를 기대한다. 그런데 공천싸움과 패권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와는 멀어도 정말 한참 멀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를 탓해야 하나? 성경은 어두워진 세상을 탓하지 말고, 빛을 발해야 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탓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정치위기의 시대에 윤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사명을 지닌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급급하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천년이나 지속되었던 봉건시대가 끝나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세속정부의 권력이 증대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세금면제의 혜택을 누리며 대중의 원성을 사고 있으면서도, 부패와 무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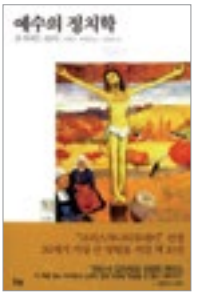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신학면에서는 루터가, 교회예배와 윤리개혁에는 칼빈이 일어났다. 그리고 당시에 급속하게 발전한 인쇄술의 덕분에 이러한 개혁사상은 신속하게 확산되었다. 로마의 발달한 도로망이 바울의 선교사역을 가능하게 했듯이, 성경과 새로운 신학사상에 접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인쇄술의 발전은 종교개혁 정신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기독 지성인은 어디에 있는가? 종교개혁 시대의 인쇄술처럼 SNS의 확산으로 바람직한 사상도 빨리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다. 신학의 변화가 근대 유럽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듯이 오늘날에도 기독지성인들이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면, 빠르게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빠져있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줄 기독교 지성인은 어디에 있는가?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처럼, 오늘날 한국을 위기에서 구할 비전을 제시하는 기독 지성인의 등장을 고대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월드뷰 2016.3.26일자)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7-19



예수의 정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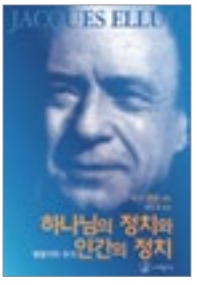
저자 존 하워드 요더 | **역자** 신원하, 권연경 | **IVP** | 정가 21,000원
원제 The Politics of Jesus

전통적으로 교회가 그려 온 구세주는 정부와 관련된 일에 대해 초연하게 서서 자기 제자들 역시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도록 부르는 그런 분이었다. 하지만 하워드 요더는 그런 예수상은 실제 예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신약 윤리학의 분수령이 된 이 작품은,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 신분, 올바른 관계 등의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한 구세주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요더는 누가복음을 개관하면서, 예수의 삶과 사역이 그의 제자들의 사회적 행동에 미친 본질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특정한 종류의 기독교 평화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회적 효율성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치

저자 짐 윌리스 | **역자** 정성묵 | **청림출판** | 정가 18,000원
원제 God's politics

저자는 미국 역사에서 종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며 승리주의와 자기의, 위험한 대외정책 추구로 나타난 것이 하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고민하며 겸손과 반성,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정의와 평화의 추구가 하나다. 그런데 2004년 대선에서 종교 우파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부시 편이고 크리스천들은 부시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 평론가들은 부시의 재선을 기독교 정신의 승리라 이야기했다. 이에 저자는 "하나님은 공화당원도 민주당원도 아니다"라는 논박을 펼쳤다. 그는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나 하나님을 정치화하는 것은 잘못이며, 일관된 도덕적 기반에 따라 우파와 좌파 모두를 자유롭게 비판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종교의 진정한 역할임을 설파한다.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

저자 자끄 엘륄 | **역자** 김은경 | **대장간** | 정가 11,000원
원제 Politique de Dieu : politiques de l'homme

열왕기하 주석『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 열왕기하의 짧은 대목들 속에서 실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리의 죄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그런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뜻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왜 인간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는 나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인간의 속악한 죄성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문제지와 해답을 함께 묶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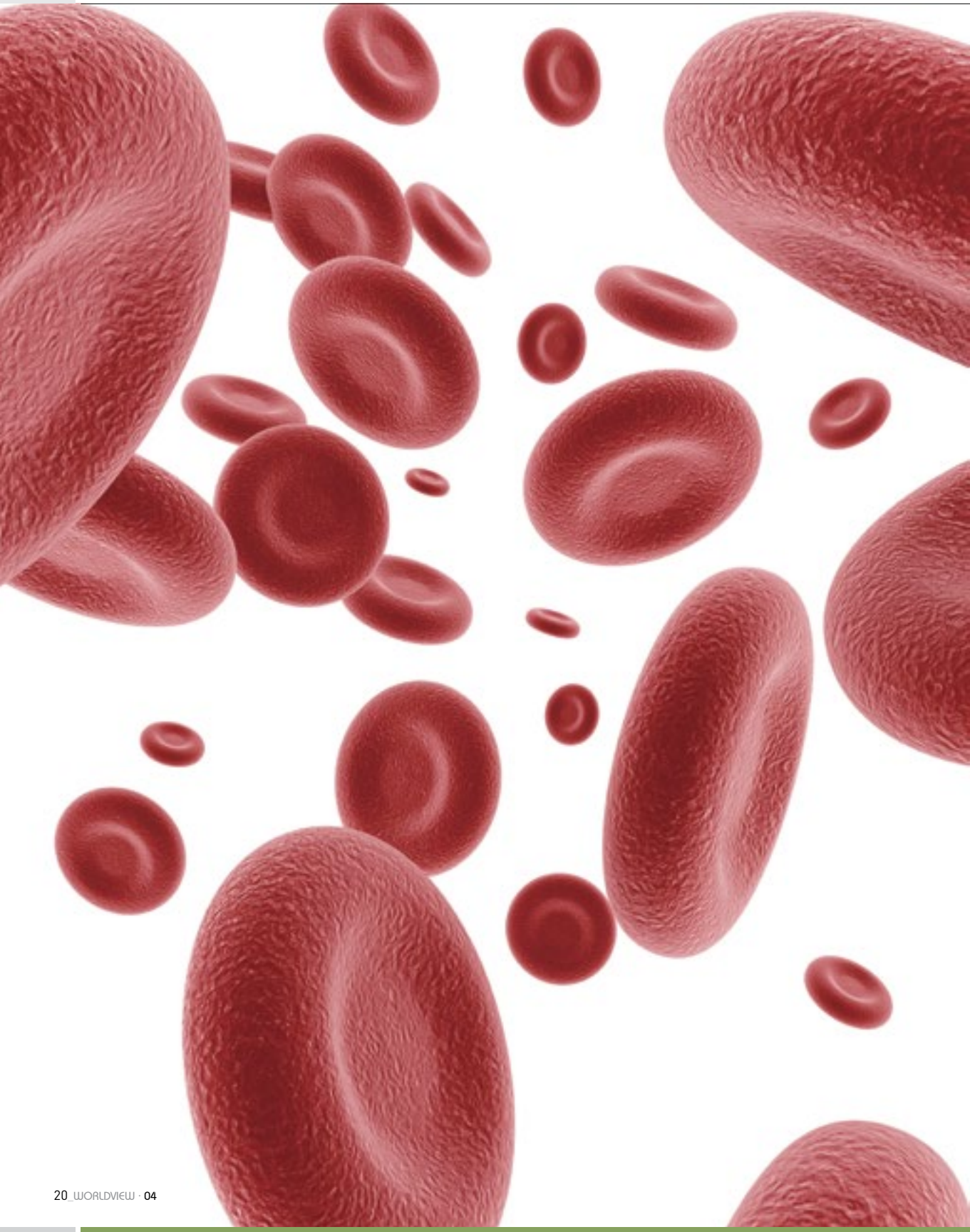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저자 폴 마샬 | **역자** 김재영 | **IVP** | 정가 12,000원
원제 Heaven is not my home : learning to live in God's creation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가이자 저술가로서, 종교 박해 연구에서 주도적 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종교 박해 조사서인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를 비롯하여 『정의로운 정치』등 16권의 책을 저술, 편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만이 아닌 이 세상도 우리 집인 것이다. 우리가 돌보고 회복시켜야 할 창조 세계는 자연 세계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이 책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좀 더 즐겁고 책임감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줄 것이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Slow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대동맥을 가로지른다. 초당 약 40cm를 이동한다. 빠른 속도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신선한 산소와 각종 영양소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피가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른다.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 뇌, 우리 몸의 남은 찌꺼기를 없애야 하는 신장,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찰나의 골격근,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나의 정체성은 혈액이다. 나는 심장에서 조금 전에 나왔다. 지금은 그저 열심히 달리고 있을 뿐이다. 달리면서 생각해 본다. 이렇게 달려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 도착하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도 든다. 어떤 영화감독의 말이 떠오른다. "도착해 보니 지옥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추월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도 되지만 혈액인 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혈관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혈관 안에만 있으면 몸이 살지 못한다. 어느 순간에는 혈관 밖으로 나가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대사산물을 받아 가지고 다시 폐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당 40cm의 속도로 이동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혈액을 보호하는 대동맥은 상당히 두껍다. 수술 시 가끔씩 대동맥을 건드려 보지만 웬만해서는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는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혈액의 안전을 위해 구조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필요로 하는 장기에 적시에 도달한다'가 지상 과제이다. 여유 있게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하루에 십만 번을 뛰는 심장 박동에 따라 대동맥에서 각종 장기에 들어가는 분지동맥으로 혈액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나는 이제 대동맥에서 장기로 들어가는 고유한 동맥 속으로 들어왔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바쁘기는 마찬가지이다. 뇌에서, 신장에서, 대장에서 그리고 근육에서, 조금 좁아진 동맥을 따라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전진한다. 그런데 대동맥에서 느꼈던 환경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대동맥에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앞으로 갈 뿐이었는데, 속도가 느려지니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 왜 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

대동맥에서 각 장기로 가는 분지동맥을 지나면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생명 현상을 위한 실제적인 산소 교환과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세혈관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이다. 대동맥의 단면적은 보통 5㎠이다. 그러나 모세혈관의 단면적은 약 6000㎠이다. 약 1200배의 차이가 난다. 모세혈관에서는 혈액이 초당 약 0.03cm정도 이동하는데, 대동맥보다 약 1300배나 느려진 것이다. 느리다. 그러나 느려야 살 수 있다. 이곳에서 빠르게 이동하면 우리 몸이 죽는다. 몸의 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대사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왔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곳은 느림의 미학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필요를 채우고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곳의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농도, 온도, 혈압을 체크한다. 이것들에 따라 내가 기여해야 할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본다. 산소가 부족하다면 더 많은 산소를 줄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면 모두 갖고 갈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세혈관을 떠난 혈액은 모세혈관보다는 빠르지만 대동맥보다는 많이 느린 초당 약 15cm의 속도로 정맥을 따라 다시 폐로, 심장으로 이동한다. 이제 속도도 적절하고 여유도 생긴 듯하다. 이제 폐로 가서 새로운 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심장으로 간다. 그곳에서 심장의 힘찬 박동에 따라 또 다시 대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것이다. 영원한 빠름도, 영원한 느림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몸의 섭리를 따라 다시 현장으로 갈 것이다.

목표에 다가갈수록 느려져야 한다. 모세혈관은 그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면 느려져야 한다. 그래야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모세혈관 속 혈액의 본질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두 공급하는 것이다. 답답해도 할 수 없다. 시간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지나간다.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천천히 가야 한다. 여기는 모세혈관이니까.

세 가지 우문(愚問)과 한 가지 현답(賢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이라는 뜻의 이 사자성어를 최근 어떤 정치인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섬부(贍富)한 지식과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부족을 채워 주는 현명한 답을 한다. 그러한 스승을 모신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표 1〉 참조). 그분들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배운 후 어떠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게 될지를 예상하고 그것들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답도 알려 주었다. 우문에 현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의 우문들까지 드러내 주면서 그에 대한 현답을 제시하는 것이다.[1)]

제4주일에는 9문에서 11문까지 총 세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각각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9문),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지는 않겠습니까?' (10문),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11문)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지만 요점은 하나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므로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6세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요리문답에서 요약한 대로 성경의 교훈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1 F. Klooster, Our Only Comfort (Faith Alive, 2001), p. 127.

김헌수 총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우문 1 –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꾐에 빠져
고의(故意)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루카스 크라나흐, 1526년)

앞서 8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9문처럼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는 요구가 부당하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것이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현실에서 나온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선한 창조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창조주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름답고 선한 일이었다. 동산의 많은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밑에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며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고귀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꾐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탄이 거짓말로 시험하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꾐에 넘어간 것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으므로 그들의 책임이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조하면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리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사탄의 종 되었던 데에서 구원하셨다. 반면에 첫째 아담은 풍요로움 가운데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로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문 2 –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지는 않겠습니까?

이어서 10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지는 않는가' 하고 묻는다. 이 세상에서 공의가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는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고 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공의를 굽히거나 양보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지나치시는 일이 없다.

'원죄'의 교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다. 많은 이들이 이 원죄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것이 논리적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악 중에 있었음을 고백했다(시 51:4–5).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못한다. '원죄'는 논리적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깊이를 바로 알 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이미 '현세'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좇아 나타난다(롬 1:18).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버려두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 중의 하나이다(롬 1:24, 26, 28).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시 125:5) 하시는 것도 중요한 심판인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죄인이 겪는 마음의 고통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 불로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영히 쫓겨난 상태에 처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살후 1:9). 불로 심판을 받는 그곳은 "바깥 어두운 데"이다(마 25:30, 41; 계 20:10, 15). 현재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심판이고, 장차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져 영원히 있게 되는 것도 심판이다.

신학 교수	교회의 감독들	당회원	기타 (정치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 페트루스 보퀴누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요한네스 벨바누스 요한네스 실바누스 요한네스 아이젠멩거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아담 노이저 페트루스 마케로포에우스 틸레만 무미우스 요한네스 브루너 미카엘 딜러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토마스 에라스투스

〈표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회의 위원 명단[2]

우문 3 –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셋째 질문은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이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에서만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말하자면 '값싼 은혜'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야단맞는 일만은 피해 보려고 변덕을 부리면서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또한 가인이 "내 죄벌(罪罰)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창 4:13) 하면서 형벌을 피하려던 태도와도 비슷하다. 셋째 질문 역시 자비와 의를 대립시키는 것으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과 의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사랑이 없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의를 건너뛰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대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11문답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답한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온전히 쏟으신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곳에서 성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그 자리는 또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현답 – 죄는 하나님의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영원한 형벌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죄에 대한 형벌을 가르치는 제11문의 답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1답: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죄의 경중은 달라진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먹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은 사안이 달라진다. 사람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엄위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사람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11문에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죄의 깊이를 깨달은 후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 하

2 http://www.heidelberg-catechism.com/ko/history/?s=67

〈위〉밤에 본 하이델베르크 고성(古城)
〈아래〉하이델베르크 구 대학 홀 (가장 오래된 건물의 하나님)

고 고백하기에 이른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죄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문제이다.

현문우답(賢問愚答)?

범죄한 아담은 자기의 죄에 대해 추궁당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대답했다.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특성이다. 4주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죄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내 놓고 가르친다. 어려운 문제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죄에 대해 가르친다. 제1부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우리의 눈에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짓는 것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심판임을 가르친다.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하여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들었다. 그런데 죄를 경시하는 현대의 사조는 이와 같은 바른 답에 다시금 자신들의 '어리석은 답'을 내놓는 일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문우답을 하는 것이 아닐까?

20대 총선과 제비뽑기

총선거는 민주주의적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는 민주주의적인가? 민주주의적 절차와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떤 지역구에서 A, B, C 세 정당의 지지도가 각각 30%, 20%, 10%라고 가상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자. 유권자의 55%가 투표에 참가하였고(2012년 총선거의 투표율은 54.2%), A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가 40%, B정당과 C정당 후보가 각각 30%와 20%씩 득표하여 A후보가 당선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A정당 내부 여론조사와 경선에서 해당 후보가 60%의 지지율을 얻어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엄밀하게 보면 이 당선자는 A정당 내에서 60%의 지지도, 유권자의 40% 지지도, 투표율 55%에 의해 전체 유권자의 13.2%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셈이다. A정당 내부 경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40%를 지지층으로 고려하더라도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22%에 불과하다. 역으로 유권자의 78%는 A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 반대하였거나 전혀 유효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만일 B정당과 C정당이 연대를 하였다면 결과는 전체 유권자의 27.5%(50%×55%)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되었을 수 있다. 선거 규칙을 바꾸어 투표자가 찬성과 반대를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찬반에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최종 점수를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A정당 후보 지지자들의 B, C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는 분산된 반면에 B, C정당 지지자들의 A정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는 집중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에서처럼 반대의사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총선거를 추첨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실제로 벨기에 문화사학자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라는 책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제비뽑기 즉 추첨제 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과정이 여러 번 나타난다. 엄밀성과 필연성이 담보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사결정치고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현행 선거제도가 제비뽑기보다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김태황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20대 총선거

맷돌의 두 돌을 연결하는 쇠붙이가 '어처구니'이다.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다. 그저 돌 두 개가 포개져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스무 번째 총선거를 맞이했다. 햇수로는 약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처구니'가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사결정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당도 야당도 총성 없는 권력싸움에 몰두하느라 머슴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 선거일 30일 전인데도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다. 수요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강매하겠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기대감과는 달리 집안싸움에 열중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면서, 최우선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면서, 온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면서, 공천을 둘러싼 '어처구니' 없는 파벌싸움에 함몰되었다.

이러한 총선거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국회의원은 대리인이다. 주인이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선택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대리인 후보자들끼리 담합을 하여 주인의 선택과 활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제도적 사안들을 국민이 먼저 선정해 놓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하는데, 역으로 각 정당마다 자기방식대로 대리인 후보를 선정하고는 유능한 적임자라고 우기면서 국민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주인으로서는 특정 대리인이 필요하기 보다는 누가 되든지 간에 맡기는 일을 바르고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선발이 아니라 공천을 받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한된 후보자들 중에서만 타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다원화 사회에서 정당정치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정당이 '주도적' 선택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종속적'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절차와 결과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번 20대 총선거에서는 지역구 253곳에 모두 944명이 25개의 정당 또는 무소속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될 즈음의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모두 1,673명이었으니 공천 과정에서 44% 정도는 포기하였거나 탈락한 셈이다. 경남 통영시/고성군의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가 단일 후보여서 투표도 없이 자동적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틈도 없이 대리인이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찬반 투표도 없다. 설령 단일 후보자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선을 돌이킬 수는 없다.

제비뽑기의 역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나 일을 선택하신 흥미롭고 신기한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직접 지명하시면 될 것을 필연적이랄 수도 없고 우연이랄 수도 없는 간접적인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신 것은 역설적이다. 천지창조 이후 우리 인간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준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우연한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고 곡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제비뽑기 장면은 한 두 번의 역사적 이벤트로만 연출된 것이 아니었다.

땅을 분배할 때에도(수17–19장, 21장), 전쟁터에 나갈 군인을 선발할 때에도(삿20:9), 사울을 왕으로 선출할 때에도(삼상10:19–21), 지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의 순서를 정할 때에도(눅1:9),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에도(수7:14–18; 에3:7, 9:24; 막15:24)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했다. 큰 상선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파선 위기에 직면한 이유가 요나 선지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였다(욘1:7).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행사가 제비뽑기로 나타나기도 한다(사34:17). 가룟 유다를 대신할 열두 사도 보궐선거에서는 제자들의 1차 선발(추천) 후 최종 제비뽑기가 시행되었다(행1:23–26).

이러한 제비뽑기에는 독특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제비뽑기를 통한 선출 방식은 절대적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외 그 누구도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방식이다. 개인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숨기거나 외면한다고 하여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제비뽑기는 우연성으로 보이거나 무책임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절대적인 주권이 엄정하게 행사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보궐선거에서 맛디아를 선출한(행1:26) 이후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사라졌다. 이로써 제비뽑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둘째, 제비뽑기는 실천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선출 방식이나 행위 자체보다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은 의사결정의 이행이다. 땅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중대한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배된 땅을 어떻게 일구어 나아가느냐에 따라 땅의 소산과 번성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군인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보다 누가 선발되든 간에 군인의 임무 수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 세간의 관심사는 국회의원으로 누가 선출되느냐이다. 하지만 총선거의 본질적인 관심사와 목적은 당선자가 누구이든 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이다. 제비뽑기는 당선(자) 자체보다 당선자가 할 일과 그 결과에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출발선의 초기조건보다 실행 과정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한다. 4년 전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선거방식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의 실적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기조건과 실행 결과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실제로 선출 시점에서는 미래의 역량 발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신입사원의 연봉을 책정하여 계약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원이 연봉 수준 이상의 노동력의 품질을 제공할지 여부는 1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셋째, 제비뽑기는 구성원이 지켜보는 데서 시행함으로써 구성원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낸다. 직접 제비뽑기를 집행하는 사람이나 간접적으로 참관하는 자들이나 모두 제비뽑기의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순응하기로 사전 동의가 되어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혹 자신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확률적 선택을 아무런 대가없이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비과학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는 방식이 오히려 참여자들의 동의와 관심을 결집시키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엉성해 보이는 제비뽑기가 이후 사업 추진과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인 결속력을 제공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수결에 의한 선출방식은 소수자의 저항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신이 사전적으로 다수에 속하는지 소수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수결 방식을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국회 선진화법의 파행적 운영이 그러하고 이번 공천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가 공천 결과에 승인 직인을 찍지 않은 것도 참여자들이 다수결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다. 다수결 방식이 민주주의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민주주의적으로 보이는 제비뽑기 방식보다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보는 기원전 4–5세기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의 민회 운영에서도 제비뽑기는 핵심적인 절차이자 수단이었다. 16세 이상 남성은 누구나 민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3만여명의 대상 시민 가운데 최대 6,000명을 추첨하여 민회를 구성하였다. 민회와 더불어 핵심 조직인 평의회 500명 위원과 행정관 700여명과 시민법정의 재판관과 배심원은 모두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했다. 행정관 중 100명만 민회에서 선출했을 정도였다.

제비뽑기가 역사적 유물처럼 간주되지만 오늘날 정치권에서 빈번하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공개(밀실) 의사결정과 공천과 대조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룰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동의를 얻어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참관인으로 참여시켜서 자율적으로 소명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선거와 투표의 교차로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일이고 투표는 선거의 한 방식이다. 투표 외에도 합의 추대나 간접적인 지명도 가능하다. 선거의 목적은 주어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 없고 후보자들이 자기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이 선포되어 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공약을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후보자를 선출하겠다는 방식은 무책임하고 수동적이다. 민주주의라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우선 추진사업을 정하고 이를 가장 잘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물론 주민들의 천차만별인 의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역으로 유능한 인재를 통해 구심점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후보자의 경력과 관상에 현혹되어 공약에 이끌리는 선거는 유권자의 주권을 매수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총선거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한다. 253개 지역구 선거만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 개인에게 거액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공직선거법 제8장 제121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의 제한액 한도 내에서 보전해 준다. 만일 평균 인구수가 15만명이고 읍/면/동 수가 평균 10개인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자가 각각 15% 이상 득표한다면 각자 1억 5,000만원씩 4억 5,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출되고 253개 지역구 모두에서는 약 1,140억원의 공식 선거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다.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지출하는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총선거를 통해 지출되는 총비용은 수 천억원을 능가할 것이다. 물론 내수 활성화와 관련 산업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공직자 선거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려면 선거를 통한 사회적 수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한다. 만일 선거 이후 당선자가 사회적 수익을 확산시키기보다 사적 수익을 확대한다면 선거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보전하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선거 과정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 선거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뽑는 일과 뽑히는 일

뽑는 일도 어렵고 뽑히는 일도 어렵다. 더 어려운 일은 목적에 맞게 뽑고 뽑히는 일이다. 목적에 부합하여 뽑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뽑힌 것 같은데 4년이 지나보면 개인 성적표나 정당 성적표가 초라한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 국민들 대부분이 국회의원이라는 벼슬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행실에는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총선거의 과정도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하지만 현실에서 그 증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은 역사적 완료형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다.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인 동시에 한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일이다.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자가 될 수는 없다. 뽑는 일은 수단이요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 제비뽑기로 선발된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존재이기에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대리인을 통한 통치이다.

총선거의 후보자는 당선 아니면 낙선이다. 절충이나 타협이 없다. 의원 금배지를 창출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 결과만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의 주권 행사의 목적보다 당선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창조세계가 올바르게 번성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점보다는 〈내〉가 관리한다는 배타적 주도권이 앞설 수도 있다. 선거 홍보와 전달매체는 세련되게 발전했을지라도 선거를 통해 나아가는 방향은 역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인류 역사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방향이다. 선거의 목적이 과학성과 현대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으로 여겨지는 수단이라도 그 방향과 과정과 목적이 합당하다면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이번 총선거는 적어도 참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제비뽑기보다도 못하다.

니가 궁금해, 신정현

고양시 사람도서관 리드미 READ ME

우리 동네 살맛나게

마을 공동체 청년운동이라 하면 될까요?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정확히 무엇을 한다고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삽니다. 서울은 청년들이 모이기가 참 쉽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사회에서는 청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이라는 블랙홀에 인근 지역 청년들은 찾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인근 지역의 청년들은 그곳에 살아도 대부분 서울에서 생활하지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 몇몇 지인들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그저 같은 지역에 사는 청년들을요. 이름도 모르는 청년 여덟 명이 모여 서로 자기소개부터 했어요. 무엇을 해 볼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 보고 싶었던 일인 사람도서관이라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것이 벌써 2013년이네요.

이야기가 된 사람, 사람도서관

매주 두 명씩, 한 시간 정도 각자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 주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2014년 9월부터 시작한 사람도서관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을 경청해요. 그렇게 공감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가족들에게도 인생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고 서로의 꿈을 응

BE+Live+r,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기, 그렇게 살아가려 부단히 애쓰는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지향하는 목적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공동체의 목적이 된 거죠. 각자의 이야기가 사람책이 되고 그런 책이 모인 사람들, 바로 사람도서관입니다.

사람을 읽다, 리드미READ ME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소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 대화와 경청만큼 중요한 것은 없구나 싶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들으며 나의 고민과 맞춰 보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여덟 명의 지역청년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이제는 스무 명에 이르는 기획단, 리드미가 되었어요. 화요일마다 각자의 일과를 끝내고 모여 다음은 무엇을 꿈꿀까 이야기하죠. 2015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시작한 고양시 사람들의 이야기는 벌써 17권의 사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평범함의 특별함을 나누다

그러다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학교에 대단한 삶, 또는 위대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아주 평범한 옆동네 아저씨, 옆집 누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자리말이에요. 사람 책을 읽는 자리에서 어떤 한 학생이 이런 후기를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아주 유명한 인문학 특강의 대가들에게도 얻지 못한 공감을 옆 동네 누나의 삶에서 격하게 느꼈고 위로를 얻었다고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이 빛을 발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꿈의학교

리드미 중 대안교육을 꿈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꿈의학교라는 교육정책이 있어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 밖 학교인데, 엄마아빠는 모르는 꿈의학교 비밀기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했어요. '누구도 선생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된다'는 구호를 정하고 처음으로 학생들을 만난 날, 하고픈 것, 배우고 싶은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 보도록 했어요. 다들 망설였지만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랩으로 만들고 싶다, 드론을 만들어 보겠다 등등 여러 꿈들이 적혔죠.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적어 보게끔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던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더니 수십 장의 포스트잇이 쌓이더라고요. 이를 카테고리 별로 나눠 보니 배우고픈 것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배우기도 하는 꿈의학교가 탄생했지요.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라면 학교에 매일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꿈의 학교가,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이 이뤄지기도 했죠.

또 다른 청년은 마을 농부를 꿈꿉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자를 캐 보기도 했고요. 한 평의 땅에서 나오는 채소로 가족 4명이 먹을 수 있다는 동네 농부 아저씨들의 말씀에 올해는 농부학교도 시도해 보려 합니다.

대안 미디어에 꿈이 있는 청년은 마을문고를 찾아가 작은 공간을 준비하고 청년 라디오, '라됴미'를 준비하고 있어요. 책을 한 번 써 보고 싶다는 청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꿈의학교가 되고 있어요.

청년을 위해 청년이 만든 고양시 청년기본조례

리드미들은 이런 감동 어린 시간들을 겪으면서 활동가가 되고, 서로의 꿈에 대한 관심으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쌓은 우리는 모일 때마다 겪는 공간의 문제로 우리를 위한 공간에 대한 고민, 우리 마을은 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을 보니 서울시에서는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이 무료로 쉴 수 있는 공간, 접할 문화와 공연 등이 있더라고요. 함께 탐방도 해 보고 고양시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청년들이 주거, 부채 등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음알음 아는 분들을 통해 브라질 공동체를 취재하고 온 기자의 이야기를 사람 책으로 들으면서 또 다른 청년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고양시 청년기본조례'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청년조례, 단순히 일자리 부족만이 청년 문제의 대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 보자, 단순 일자리 문제를 넘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해 청년정책의 기틀을 만들어 보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권도 보장하고, 능력 개발, 고용 확대, 문화 활성화, 청년 공간 마련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운동은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되었습니다.

목적어 없는 청년운동, 우리는 '니가' 궁금해

대부분의 운동movement은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면 그 운동은 끝나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 공동체의 목적은 단 하나에요. '니가 궁금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운동은 목적이 실패하면 와해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저희에게 가장 큰 사회 안전망은 사람들이에요. 따뜻한 마을 공동체, 우리 사람 안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궁금해?

고양시사람도서관 리드미 : http://blog.naver.com/youreadme
페이스북 페이지 : 리드미

1984, 꿈의 대화

제1회 컨퍼런스, 1984

지금은 60대에 이른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오늘을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들이 되겠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때를 맞이할까요?
우리는 다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요?

지금, 여기서 당신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땡스북』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땡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Recommend

이것은 질문입니까? 존 판던 지음 | 류영훈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입학 인터뷰 질문 60개에 대한 기발하고 창의적인 대답을 담아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학생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을 법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질문까지 던집니다. 무조건적인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생각할 줄 아는가를 살펴보는 질문을 만날 수 있으며, 더 깊고 넓게 더불어 재미있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Thanksgive's Think

왜 사냐고 묻지마

입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정답만을 강요하는 서글픈 이 시대의 교육 현실 몇 가지 장면. 문제집을 풀어나가다 지문에 얽힌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영혼 없는 목소리로 돌아오는 대답, "그거 시험에 나와요?" 그나마 점수에 반영이 되는 수행평가와 활동에는 따라오던 아이들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활동은 대충대충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기말고사가 끝난 교실은 이미 좀비들의 무덤. 독서를 보다 생활화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마저 이제는 진학을 위한 전략적 도구가 된지 오래다.

1년에 한번 수능시험이 끝나면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몇 백 건에 이르고, 오직 정답만을 찾아 재판까지 넘어가기도 하는 희한한 나라. 깊이 있는 독서와 경험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대신, 논술 고사 답안을 쓰는 법과 면접하는 방법마저도 학원에서 배운다. 그게 훨씬 쉽고 빠르니까!

「이것은 질문입니까?」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입학면접에서 던지는 질문 60개를 선별하여, 저자가 나름대로 대답을 해 본 것이다. 확실히 황당하고도 교묘한 질문들이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생각하는 힘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도통 질문이 없고, 오마바 앞에 기자들도 질문이 없다. 청와대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 질문이 있어도 정답만을 기대하는 질문일 뿐이다. 잠시 정답을 찾는 질문에서 벗어나 재기 발랄하고 엉뚱하면서도 상상력을 초월하는 이 질문들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 쪼그라들고 있던 뇌세포들을 한껏 자극해줘서, 나도 꽤 재밌는 질문을, 유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keyworld

생각하는 힘 | 인터뷰 | 수평적 사고 | 우문현답 | 질문의 능력

서평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우주에 속한 세계시민으로

강남순 저
새물결플러스

#1

작년 말 중동 난민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테러단체 ISIS가 공작원들을 난민으로 위장시켜 서구 여러 국가에 잠입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중동 국가로부터의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무슬림 난민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여개 주의 주지사들은 자신들의 주에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정치인들은 중동 난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특히 미 남부 지역의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2

지인으로부터 〈기독인의 긴급 기도제목〉이라는 제목의 카톡 문자를 받았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 같았다. 제법 길어서 여기 다 인용하지는 못하지만 대강 내용은 이렇다. 전라북도의 한 도시에 이슬람 할랄 식품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것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무슬림들을 데려와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는 계획이며, 이슬람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종교이니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슬람화되면 우리도 프랑스 파리처럼 무슬림 테러분자들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과 이 소식을 널리 알릴것을 당부하며 메시지는 끝을 맺는다.

위에 소개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민족주의, 세계화, 분쟁, 그리고 종교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던 차에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라는 책의 서평을 부탁받고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었다. 책의 부제는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이다. 저자인 강남순 교수는 미국 텍사스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리얼리즘, 페미니즘, 코즈모폴리터니즘과 같은 현대 철학/신학 담론들을 가르치는 신학자인데, 2007년 한 학술회의를 통해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처음 접한 이후 계속해서 이 주제를 연구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거의 최초로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영문 저작을 출간한 바 있다.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는 보다 대중적인 언어를 통해 한국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로 원래 〈기독교 사상〉에 7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책은 모두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의미와 특성, 가치에 대해 논하고 코즈모폴리터니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다룬다. 흔히 "세계시민주의"로 번역되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저자는 한 줄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은 경제적, 문화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임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어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인류'라는 보편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연민, 책임 의식과 돌봄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물음으로 1장을 시작한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속한 한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우주에 속한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사실로 자리 잡을 때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p. 17)" 이 질문은 아직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코즈모폴리터니즘은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불가능성과 무조건성의 영역으로서의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윤리'와 가능성과 조건성의 영역으로

신찬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미 시라큐스 대학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미 인디애나 웨슬리안 대학(Indiana Wesleyan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국제관계의 여러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서의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두 공간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예언자적 사명'임을 역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가 말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은 1) 거시적-상호의존성의 원리, 2) 우주적 환대와 책임성의 원리, 3) 초경계성(trans-boundaryness)의 원리, 그리고 4) 초정체성(trans-identity)의 정치학, 이 네 가지 원리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이 원리들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수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데, 1) 개방적 민족주의, 2) 인권의 개념 확장, 3) 지구적 정의, 4) 세계의 영구적 평화 그리고 5) 지구적 공동체가 그것이다. 저자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이 민족주의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전자가 단순히 철학적인 이론을 넘어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인 3장에서 5장까지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다양한 사조를 논하는데 스토아주의 코즈모폴리터니즘, 칸트주의 코즈모폴리터니즘, 그리고 기독교 코즈모폴리터니즘이 각각 어떻게 현대 코즈모폴리터니즘의 형성에 기여했는지 밝힌다. 마지막 6, 7, 8장은 사실상 이 책의 핵심으로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이 환대 (hospitality), 이웃 사랑, 그리고 종교 이 세 가지 주제의 이해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있게 논의한다. 6장에서 저자는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의 논의를 빌어 코즈모폴리턴 환대를 논하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상대적 환대'와 '절대적 환대'의 구분이다. 상대적 환대는 '초대의 환대'로서 주인이 권력을 가지고 환대의 대상과 범주를 결정하는 '조건적 환대'이다. 이에 반해 절대적 환대는 '방문의 환대'로서 예상하지 못한 방문자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맞이하고 환영하는 '무조건적 환대'이다.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를, 그것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베푸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음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그것이야 말로 바로 성경이 명하는 바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준 환대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관점에서 이웃 사랑을 논하는 7장은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어거스틴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는 용어를 줄곧 사용한다.) 저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범위가 같은 국가나 종교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이 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결국 이방인과 원수까지도 이웃을 삼으라고 한 예수의 가르침은 저자가 말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에 기반한 이웃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자는 한나 아렌트, 미셸 푸코, 조르조 아감벤 같은 현대 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우리 주위에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곧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얼굴 없는 비존재들로 살아가는 소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나치 시대의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들, 그리고 현대의 불법 이주자, 난민 등이 이러한 부류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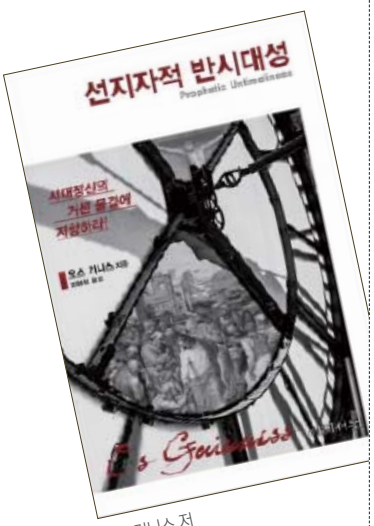
이러한 급진적인 이웃 사랑의 개념이 6장에서 언급한 무조건적인 환대와 더불어 매우 복잡한 제도적, 정치적 함의를 가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저자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

서, 사회정치적 차원을 등한시하는 '탈정치화'된 환대와 이웃 사랑은 불완전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 이웃이 아닌 적으로 규정될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글의 서두에 언급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더 이상 가정에 근거한 질문이 아니다. 테러범일지도 모르는 난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듯이 보이는 관습과 법을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이미 미국과 한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씨름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이다. 물론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정치와 윤리, 현실과 이상,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거리에 민감하면서 그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독려할 뿐이다. 왜냐하면 저자가 보기에 이런 '불가능한 세계의 비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는 의미있는 책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자가 제도화된 기독교에 대해 일관되게 보이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저자는 제도화된 교회가 예수와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왔고 역사적으로 많은 악을 저질렀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도 기존의 한글 성서번역을 따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인용하며,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는 단어를 줄곧 사용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물론 교회가 역사적으로 저질러 온 과오를 감추거나 축소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리고 현재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물질 숭배 사상에 빠져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정한 코즈모폴리터니즘 실천의 예로 적십자 운동이나 국경없는 의사회를 언급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참 환대와 이웃 사랑,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있다. 저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 특정 공동체에 뿌리내리지 않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자칫 공허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교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려 국경을 초월한 이웃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해 본다.

서평『선지자적 반시대성』

진정한 적합성



오스 기니스 저
김형원 역
이레서원

몇 해 전 "In Time"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었다. 이 영화는 시간을 돈으로 사용하는 가상 사회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다. 이 영화에서 지배층은 막대한 시간을 독점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노동자들은 급료로 시간을 받는데, 그것은 고작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와 하루 먹고 살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끝날 정도였다. 작가가 상정한 이 가상 사회는 '하루살이'라는 표현이 극도로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시간의 굴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사회에 적합하게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떤 사회든 〈송곳〉과 같은 인물이 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주인공은 눈앞에서 어머니가 몇 초가 부족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죽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주인공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출입이 통제된 중심부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오스 기니스는 『선지자적 반시대성』(Prophetic Untimeliness)에서 위 영화의 주인공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기독교인들에게도 던진다.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통해 시계는 더욱 정밀화, 소형화, 대중화 되었고, 이를 통해 생긴 새로운 시간 개념은 사람의 인생을 분, 초 단위로 나누어 계량화하기 시작했다. 시간의 계량화와 산술화는 인간의 노동의 양과 가치를 숫

자로 환원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노동은 시간이고 돈이라는 등식을 만들게 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오스 기니스는 정밀성, 조정성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압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시간의 한시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 구도 속에 적응하고 안주하여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영원을 향한 갈구와 반시대성을 불편하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오스 기니스가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타락의 고통은 결국 시간에 속하지 않는 초월적인 곳에서 들어온 어떤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스 기니스가 보는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는 너무나 시간 속에 깊숙이 들어가 동화 되어 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최근의 모든 고결한 선언서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공동체의 상당수가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그들은 오직 성경에서부터 오직 문화로 권위를 이전하였다." (99)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며, 유행과 대중에 영합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명의 청중, 즉 유일한 청중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모랫더미와 같은 대중의 의견에서 인정을 구하고 있다." (113)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 가치 있는 자와 집단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세상을 변혁하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내용 없는 구호와 잔치만 무성한 광신자적 집단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그럴수록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귀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별로 유익할게 없는 그저 그런 집단으로 볼 뿐이다. 과거 사회진화론이 사회가 계몽되면 결국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기독교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철학이나 문학처럼 만들어 차별성 없는 정체

이춘성 국제 라브리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으로 사역 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고 고신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 박사 과정(Ph. D.)에 있으며, 세종시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성을 상실한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오스 기니스는 복음주의가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느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럴 때 신조는 옆집의 불신자 또한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된다."(101)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고백하는 신조(신앙고백)가 어떤 종류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고작 몇 마디 안 되는 구호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이해 못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또한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혹시 남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소한 것이면 어떡하지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는 절충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으며,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기보다는 액세서리임이 분명하다. 오스 기니스는 현대 복음주의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신실한 자로 거듭나라고 주문한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마치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본 후, 감동에 흠뻑 젖어 마지막 자막이 모두 올라간 후에도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것처럼 주일 예배의 설교 후, 그 자리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도 했던 기억이 언제였던가? 절대적인 말씀의 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고 싶은 깊은 절망감과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언제나 긍정하며, 행복이라고 외치는 강단의 기분 좋은 설교 앞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가 기독교를 고통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정을 통해 긍정에 이르는 바른 과정이 없이,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가 무턱대고 긍정과 성

공만을 외쳤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깊은 성찰이 사라진 가벼운 자들의 얄팍한 공동체라는 평가만 남겨졌다. 이런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죄의 고백과 용서, 진리를 위한 헌신이겠는가? 아니면 달콤한 과자와 음료로 가득한 잔치겠는가? 그러기에 오스 기니스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청중이 아니라 메시지가 주권을 쥐고" 있는 교회라고 역설한다(100).

하지만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회에서 부적응자라는 수식어, 이에 따르는 초조함,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함으로 일어나는 실패 등이다. 그러나 오스 기니스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성취나 어떤 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부르심받았기에 우리 자신" 이라는 것이다(140). 그러므로 부르심과 소명은 존재라는 기초 위에 서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며, 사실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기에 하나님의 영원의 시각 속에서 이는 분명 성공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성공을 확인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 부르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시대성, 시간을 넘어서는 관점(영원)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적합성(relevance)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기독교인 여성 철학자인 시몬느 베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항상 적합하길 원한다면 영원한 것을 말해야만 한다." 진정한 적합성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그 어떤 분에게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갈수록, 더욱 알수록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다.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을 끝맺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알고도 죽지 않을 정도)을 알기를 열망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관점을 견지할 수 있으며, 그래서 무엇이 진실로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것을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시대에 적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71)*

서평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로 변화되게 하는 설교

브라이언 채플 저
안정임 역
CUP

"강해설교의 목표는 간단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설교자의 주된 목표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에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되게끔 하는 것이다."(16)

"단순히 주석에 적힌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충성된 설교자는 성도가 마땅히 들어야 할 내용과 들을 수준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실제적 사실, 교리, 예화, 적용점을 제시하고 목회자의 로고스(성경의 말씀), 파토스(감정), 에토스(성품)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살전 2:2~13)."(18)

"설교가 명료하고, 흥미롭고, 잘 짜여있지 않으면 설교자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되고 더 나아가 말씀의 진리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교의 어법과 구조 체계를 터득해 설교 내용이 듣는 이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이해와 기억을 증진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설교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기억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적 진리와 대면시켜 그들의 의지와 뜻이 그리스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성도가 무엇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깨달았는가를 잣대로 설교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설교를 듣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19)

"설교자의 의무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inform) 그 진리로 변화되게(transform) 하는 것이다. 그런 의무가 있기에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곧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통로이자 능력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19)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러나게 하는 것이 설교의 주된 목적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34)

"기독교 설교는 시종일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분을 섬길 수 있게 된다."(40)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의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입증하고 있다."(40)

"하나님의 사랑을 가속하는 은혜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을 구속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궁극적 이유다...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연료를 공급해서 그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은혜를 전하는 설교는 구세주의 사랑을 타오르게 한다. 모든 말씀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는 단순히 성경의 전체 주제들로 인해 요구되는 해석적 전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꾸준히 알려주는 노력이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한다. 설교자는 성경 전체에 스며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설명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44, 45)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칭송함으로서 그 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때 설교는 기쁨이 된다...성경에 나오는 명령과 마음의 동기, 은혜의 능력이 합해 줄 때 더 나은 설교가 가능하다. 이런 설교에서 복음의 명령은 사라지지 않는다."(46)

"복음을 참되게 전하려면 은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은혜에 관해 설교하고 있는가?'"(47)

목사의 기본적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늘 경험하는 것처럼 참 쉽지 않다. 모든 목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있다. 목사는 '메시지가 좋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고 항상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목사가 항상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는 '참 설교는 어렵다'는 것과 연륜이 쌓여 질수록 설교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목사는 '재직 중에는 늘 오늘은 누가 와서 설교를 좀 해주지 않으려나하고 바라고 은퇴 후에는 오늘은 어디서 설교 청탁이 오지 않으려나하고 기다린다.'는 유머처럼 항상 설교는 쉽지 않고 목사는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을 지닌다. 자칫 하면 목사는 연륜이 쌓일수록 다음과 같은 현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설교 기술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사역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나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의식이나 상투적인 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교회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사역하

권경호(權鏡浩) 목사는 부산의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부산 부평교회를 시무했다. 남아공의 노스웨스트 대학교(North West University, 지난 이름 Potchefstroom University)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박사(Ph. D) 학위를 받아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고신대학교의 이사를 역임한 후 후배들을 위해 조기 은퇴하여 동 교회 원로 목사로 있다.

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방 잘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적절한 교회 성장 비법을 활용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 교회는 부흥할 거야.' 사실 자신의 목회와 신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날마다 밀려오는 목회의 압박감은 날마다 이런 식의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목회가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술을 발휘하는 전문직이 되는 것입니다." (본서의 설교 '어떤 첫 번째 회개자' 중에서) 그래서 저자가 예시한 것처럼 세월이 갈수록 설교 준비가 기계적인 작업처럼 되어서 목수가 망치와 못을 들고 목공 일을 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거기다가 한국 교회 목사들은 설교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 한다.

교훈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목사가 성도들을 보다보면 성도들이 너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대로 때로는 고집센 교인들, 마음대로 사는 교인들을 채찍질하여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열심히 봉사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동시에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는 준비하는데 비교적 쉬운 면이 있다. 성경 연구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설교를 준비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자극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판된 책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는 우리에게 사역의 현장에서 감동적으로 읽고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설교 지침서이다. 이 책은 설교자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의 맥락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하며,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감격 속에 빠지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저자인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은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교수이자 총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명예총장, 낙스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이며, 미국 일리노이 주 그레이스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미국 장로교(PCA)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 협력 사역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1999년, 도서출판 은성)",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 "성화의 은혜(조계광 옮김, 2014년, 지평서원)",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2011년, 부흥과 개혁사)",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김진선 옮김, 2014년, 성서유니온)" 등이 있다.

이 책은 오래 전에 출판된 저자의 설교 지침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Christ-Centered Preaching, 1994년에 출판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초판이 1999년 김기재 역으로 도서출판 은성에서 출판되었다.)를 뒤이어 그 원칙에 입각한 설교의 본보기를 실었다. 프롤로그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간략한 요약을 실려 있다.

'1부 설교의 구조'에서는 먼젓번 책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제시했던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데 유용한 구조적 도구들에 대한 적용 편으로 구조적 도구들을 강조한 설교 예문들을 실었다.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전형적인 구조형태의 강해설교, 핵심 논지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강해설교, 귀납식 강해 설교, 그리고 특별한 날에 하는 주제 설교(제목 설교) 구조의 예를 제시했다.

예시한 설교에는 지침과 참고 서적을 덧붙여서 단계마다 필요한 원칙과 실제를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래서 독자가 이 원칙을 적용하려 하고 이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려고 시도했다.

'2부 성경 신학'에서는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본문이 어떻게 예수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예비하고, 반영하고, 그 결과를 들어내는가를 찾아내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탐구한다. 이 설교 예문들을 통해 구속 사역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이 구속적 막힌 길, 혹은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예문들은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해석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부 복음 적용'에 수록된 설교들은 성경에서 발굴한 구속의 진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이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설교마다 강조점을 달리해 제시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말씀의 능력이 가진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면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설교자가 힘든 역경 속에서도 소망과 담대함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격에 빠지게 하는 설교

요즈음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설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들게 할 뿐 아니라 여러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에서도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간하기조차 힘들어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어떤 면에서는 설교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표현하면 설교들이 상품처럼 보고 지나가는 물건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런 속에서 이 책은 정말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바른 설교인지, 그리고 어떤 설교가 성도들로 하여금 감격 속에 빠지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는 설교모음이다.

제2부 성경 신학과 제3부 복음 적용 부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정말 저자가 말하는 은혜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은혜 없는 복종의 삶이 가능하지 않듯이 은혜와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섬기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확신을 더욱 가졌다. 다만 1부의 특별한 날에 하는 설교 "여호와의 영광" 부분은 조금은 실망스러웠고 여기의 설교들은 저자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진수들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이렇게 짜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늘 이렇게 설교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안다.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바쁜 사역 속에 사는 설교자들이 준비하는 일도 힘드는 일임에 틀림없다.

적절한 예화 사용

이 설교 예문들은 많은 적절한 예화들을 사용하고 있다.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설교와 예화를 집과 창문으로 비교하면서 좋은 예화는 설교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적절하지도, 정확하지도, 그리고 감동적이지도 않은 상투적인 예화들이 남발되어 예화가 설교처럼 보이는 오늘, 저자처럼 예화를 사용하려면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면들에도 불구하고 이 책과 여기에 실린 설교의 예문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로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지침서임에 틀림없다.

서평 『작은 교회 새롭게 다시 보기』

작은 교회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장명수, 염두철 저
예영커뮤니케이션

작은 교회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교회 새롭게 다시 보기'. 책 제목 자체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제목이다. 아마 작은 교회에 대한 지난날의 좋지 않았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 것 같다.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라 불리는 이런 작은 교회는 어쩌면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인지 모른다.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또 모르는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게 되는 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교회'들이 많다. 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픔과 고통의 절규가 이 땅에 가득하다. 비록 표현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아픔이 많다는 것, 심각한 어려움 중에 작은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물론 그 안다는 폭과 깊이는 서로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작은 교회들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작은 교회'라는 주제를 말하기 어려운 까닭은 암울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작은 교회가 다 같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인이 가족 외에 거의 없는 교회도 있고 삼사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도 있다. 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상가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모이는 교회도 있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도 각양각색이고 목회자의 성향이나 작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의 성격도 다 다르다. 즉 작은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한 가지 모델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따른 이유는 작은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작은 교회'를 골칫거리나, 죽어가기에 살려야 할 대상이

나,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고 잘못된 접근이지만, 작은 교회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답이 없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다루기 힘든 주제인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저자들이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나아가 그 작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것이 굉장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

감사한 것은 이 책의 저자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는 사실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중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것이다. 작은 교회에 대한 최소한 두 가지의 경험과 두 가지의 시각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다양한 목회 경력이 있고 또 현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 책에 믿음이 생긴다. 저자 중 한 명인 장명수 목사는 선교학을 전공하고 러시아 선교사로도 사역하였고, 또 다른 저자인 염두칠 목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경험했다. 그래서 저자들은 작은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 풍부하다. 두 분은 고교 친구로 40년 동안 우정을 나누며 또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다. 두 분 저자가 오랜 목회 활동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작은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작은 교회를 바라보고 책을 썼기에 신뢰를 가지게 된다.

책 내용

이 책은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특히 개척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목회자들에게는 익숙한 얘기여서 쉽게 이해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예화와 다양한 글을 통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또 근거를 제시한다.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나의 길을 가리라'에서는 작은 교회의 현실에 관해 얘기한다.

김신정 고려신학대학원과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기존 신자들의 양육과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전인적인 신앙과 철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살기운동(www.clm.kr)의 대표이며 저서로는 리포밍 처치(기독교 세계관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파도타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프로 서퍼(Surfer)라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멋진 파도타기를 할 수 없다. 파도가 잠잠한데 굳이 파도타기를 하겠다고 파도를 만들려는 사람은 없다.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저자는 작은 교회가 목회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면서현 상황이 부흥의 시대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교회의 의미를 말한다.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작은 교회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작은 교회는 작지만 건강하고 공동체성이 있는 곳이다. 작은 교회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당당하게 작은 교회로서 정체성을 갖고 존재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하나의 존재 양식과 교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작은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자연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2부 '일어나 함께 가자'에서 저자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빠지게 되는 탈진과 좌절과 우울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는 얘기들을 한다.

"언제까지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외형적 성공과 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가치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치관이 뒤집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닫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제 다시 일어나자.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할 일 많은 일터와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나가자."

또 저자는 작은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작은 교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의 정체성으로 당당히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과 같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 "힐링 사역은 소그룹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잘할 수 있다.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주님의 품안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3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에서 저자는 큰 교회와의 관계와 협력에 대해 얘기한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저자는 큰 교회가 작은 교

회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한국 교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 더 이상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힘을 합해서 "오늘날 교회를 뿌리 째 흔드는 물량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순수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작은 교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 책은 작은 교회에 대한 성공담도 아니고 작은 교회의 비결을 소개하는 책도 아니다. 단지 작은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 낙심한 작은 교회에게 그들의 사역의 의미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책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실패와 무능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야말로 작은 교회는 새롭게 다시 보아야 할 대상임을 일깨운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우리의 글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직은 부족하기에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이 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우리가 제안한 작은 교회에 대한 대안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융합되어 더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듯이, 이 책이 모든 작은 교회의 문제를 다 다루거나 모든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작은 교회는 스스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위로와 새로운 시각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작은 교회 새롭게 다시 보기'를 읽으면서 작은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어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어둠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들은 아픔을 가진 채 오랫동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교회들, 또 그런 작은 교회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고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많은 작은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작은 교회를 단순히 실패와 좌절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다시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매일 작은 교회를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훌륭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2. 에어푸르트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년 전부터 기념행사들을 시행해왔고, 세계 여러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에 세속화가 거센 지금 시대에, 종교개혁의 슬로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아들에게 기대가 컸다. 자신은 탄광촌에서 먹고 살아야 했지만 아들은 크게 성공시키고 싶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입신양명(立身揚名)에 대한 꿈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루터는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 아이제나흐 등 여러 도시를 거치며 교육을 받다가 드디어 그의 운명적 장소가 되는 에어푸르트(Erfurt)에 도착한다(1501년). 이 도시는 대성당과 세베리(Severi Church)를 세우며 수많은 순례자들을 불러모으는 제법 규모가 잡힌 상태였다. 에어푸르트를 두고 루터는 자신의 영적 고향이라고 고백하였다.

루터는 처음에 아버지의 원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꿈 또한 다르지 않았다.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도 법학을 공부하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는데, 법학은 당시 의학, 신학 등 출세를 보장받던 학문 중 하나였다. 루터나 칼빈이나 회심을 체험하면서 세상 학문처럼 보이던 법학를 통해 철저하고 진지한 학문성을 연마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성령을 덧입혀 훌륭한 저술을 하도록 준비시키셨다. 바울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사도는 회심의 면에 있어서 누구보다 종교개혁가들의 모델이 된다하겠다. 바울도 가말리엘 문하에서 엄정한 학문을 연마하지 않았던가. 주님은 바울을 회심시켜 얼마나 귀하게 그의 예전 학문까지 사용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루터의 삶도 바울을 닮았다. 그는 에어푸르트에서 운명적 부르심을 입는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이 말씀이 루터에게 실제로 임하신 것이다. 그는 에어푸르트 북쪽 쉬토토른하임이라는 마을 곁을 지나다 악천후를 만났다. 폭풍 속에서 벼락이 내리치며 나무를 불태우는 광경이 벌어졌다. 그는 기겁하고 놀라 땅바닥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서원하였다. "거룩하신 마리아여,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꾼이 되겠나이다." 그날은 1505년 7월 2일로 기록되어있다.

루터는 지체하지 않고 에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다. 1505년 7월 17이었다. 서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2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연히 아버지는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2년 뒤 1507년 4월 4일 루터는 에어푸르트에서 사제 서품을 받는다. 이때까지도 그는 가톨릭 신자였다.

※ 이 글은 〈연합기독뉴스〉에 실렸던 글임을 밝힙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2월 29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2,160,000	인건비	일반급여	4,544,000
	임원회비	1,240,000		기타급여	811,750
	일반회비	6,300,000		소계	5,355,750
	기관후원금	5,728,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862,500		사무실관리비	417,000
	CTC후원금	90,000		통신비	183,12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2,730
	기타후원금	500,000		소모품비	70,500
				비품	319,000
				식비	367,900
				복리후생비	367,850
				퇴직연금	309,250
				회의비	27,000
				회계용역비	550,000
				기타	308,282
				소계	3,472,632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89,450
				연구회연구지원	200,000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17,880,500		소계	1,289,450
기타수입	기타수입	110,2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발송비	742,580
				소계	3,242,580
			기타	세금	381,050
				기타	0
	소계	110,200		소계	381,05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100,000
	세계관기타수입	0		세계관행사준비	4,777,174
	소계	0		소계	4,877,174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0
	학술지심사비	210,000		학술지발송비	19,600
	학술지게재료	0		학술지심사료	0
	저작권료	10,000		학회기타	100,000
	소계	320,000		소계	119,600
당월 수입액		18,310,700	당월 지출액		18,738,236
전월 이월액		50,702,254	차월 이월액		50,274,718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2월 29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2,418,000
				기타급여	0
				소계	2,418,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990,000
				인쇄비	2,298,780
	소계	550,000		소계	3,748,78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복리후생비	161,930
	도서판매비	140,000		퇴직연금	146,210
				회계용역비	110,000
				회의비	66,000
				소모품비	5,500
				소계	489,640
			기타	세금	211,100
				기타	2,000
	소계	2,640,000		소계	213,10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행사준비	106,00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기타	361,100
	소계	0		소계	467,100
당월 수입액		3,190,000	당월 지출액		7,336,620
전월 이월액		22,230,879	차월 이월액		18,084,259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29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경휘, 김봉현, 김샛별, 김샛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창수, 김태영,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원근, 박지만, 생명의강, 성관수, 안용주, 영음사, 옥광천, 유성욱, 윤혜경, 이동렬, 장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조은주,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공승건,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방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제우, 김태영, 김태윤,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제, 박상균, 박승룡, 박천규,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인수, 이종혁, 이향숙, 이효진, 임소연, 임형준, 임효숙, 장헌일, 전광학, 전정진, 전충국, 정봉현, 정한궁,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희정, 한동현,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성욱, 김재우, 박대희, 박현빈, 방선기, 이경우, 이남철, 이세호, 이은순, 이지은, 전영식, 정찬주, 진영규 **1만** Lee chun hee suk,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승모, 강연정, 강원석, 강은정, 강은주, 강혜영, 고길현, 고선옥, 고연경, 고웅재, 고재호, 곽은이, 곽정인, 구준회,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길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헌, 김남진, 김동찬,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례, 김봉수, 김상범, 김상욱, 김성경, 김성규,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세연, 김세중, 김승호, 김아람, 김아론, 김양호, 김영규, 김영숙, 김영완,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민,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진, 김정호, 김정화, 김종국,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민, 김진성, 김진아,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호, 김판임, 김혁,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섭, 김홍제,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노이름,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문제환, 박강국, 박경원, 박기언,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복애,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운, 박용성, 박원곤, 박은영, 박은주, 박종국,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진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형준,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원, 배아론, 배인교, 배지연, 배효진, 백경은, 백현준, 변희지,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영규, 손하은,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효영, 심명섭,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건,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경옥, 오성호, 오지순, 우종학,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선덕,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의신,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경수, 윤명심, 윤미선, 윤상현, 윤숙자,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경연, 이경직,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기섭, 이기훈, 이길구, 이길형, 이덕영,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헌, 이문원,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급, 이상무,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선, 이선복, 이성미, 이성수, 이수연,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배,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미, 이은혜,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환,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청걸,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미림, 임상필, 임소현,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동진, 장성호,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옥경, 장용훈,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구, 전종화, 전찬양, 정경식, 정동섭,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재현, 정정숙, 정진우, 정현구, 정현주, 정회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성은, 조성효, 조승희, 조용배, 조용현,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주영, 조하람,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세진, 최승호, 최영수, 최윤영, 최종빈, 최진우, 최한빈, 최현정,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헌진, 한미영, 한혜실, 한희수, 허기영, 허 연,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한나, 홍구화, 홍대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종인,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LEESAMUELY, 김나실, 김선화, 정상섭, 최동원 **1만7천5백** 이승호 **2만** David Han, 강대훈, 강용란, 김세광, 김소라,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박계호, 배성민, 백은석, 변우진, 석지원, 송태상,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인아, 이정규, 이충원, 조창근, 한인관, 한진영, 황성신 **2만5천** 김승택 **3만** 강석현,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지인, 문석윤,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손한나, 송태현, 오의석, 오한나, 우병훈, 이근호, 이성일, 이예진,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최 영,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3만7천** 이수형 **4만** 최현식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김의원, 박문식,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이형진, 전장원,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감리교신학대도서관, 강진구, 숭실대학교도서관, 조무성 **7만** 최태연 **8만** 권정아 **10만** 박상은, 손봉호, 손영옥, 송인규, 신정윤, 양성만, 양인평, 윤완철, 전광식 **12만** 신채기, 최홍영 **15만** 강상우 **20만** 엄 현 **30만** 김승욱 **60만** 유재봉 **120만** 양승훈

계 11,152,5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강남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예심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언약교회, 주님의은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2만8천 쥬빌리채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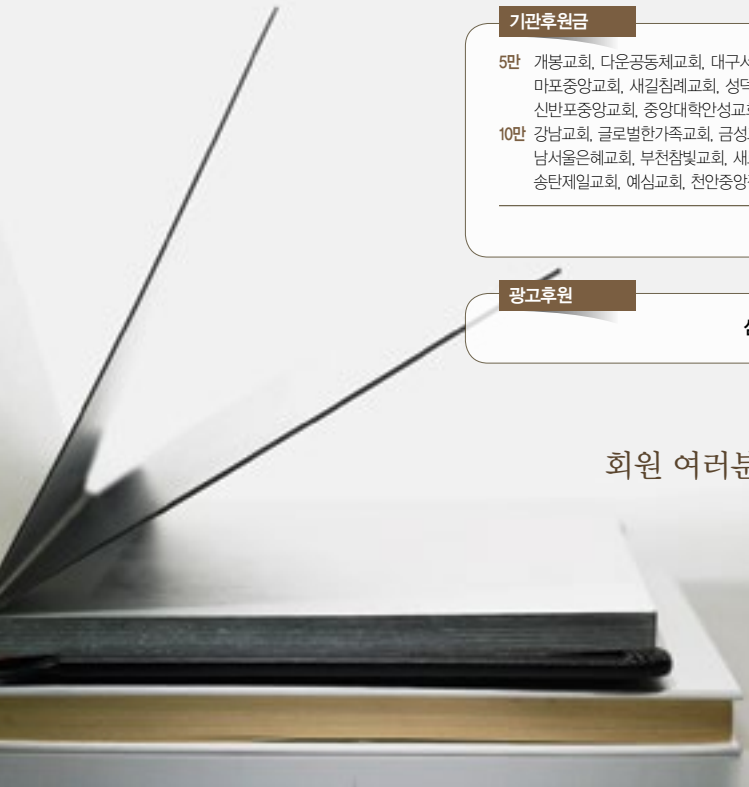
100만 사랑의교회, 엘비젼

130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6,728,000원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홍성사, DCTY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신규 모임] 월드뷰리더(Reader) 공고

함께 모여 〈월드뷰〉를 읽는 리더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만 읽기 아쉬웠던 분들, 혹은 나누고 싶었지만 나눌 이가 없던 분들 함께 모입니다. 이번 모임부터는 과월호 칼럼니스트 중 한 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3월호 〈종교개혁 정신과 가정의 신앙교육〉의 칼럼니스트 한신영 선생님과 함께 개혁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로마교회의 전통으로부터 부모의 역할을 개혁했는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수다시간 기대하세요. 사당역 와우카페에서 시작합니다. 꼭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먼저 신청해주세요.

- **일시** 2016년 4월 7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와우카페 (2,4호선 사당역 인근)
- **토크** 한신영(월드뷰 3월호 칼럼니스트 〈가정의 신앙교육〉)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담당 : 김고운 간사)

[대학원생 모임] 기독대학원생 모임 공고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대학원생 모임이 있습니다. 4월을 맞이하여 나들이로 시작됩니다. 그간 마음은 있으나 선뜻 자리를 함께하기 어려웠던 분들, 편안한 신발과 마음으로 오세요.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은 정문에서 10분 정도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 조금 일찍 오는 센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 **일시** 2016년 4월 9일(토), 정오
- **문의** 성균관대학 호암관
-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54-8004

[전주 회원모임] 전주 회원모임

전주에서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전주의 회원분들도 함께 모이시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세계관 세미나와 함께 동역회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장소를 제공해주실 전주 지역의 교회와 단체,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카카오톡/문의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정해 지지 않아 연락 주신 분에 한하여 안내드립니다.

- **일시** 2016.5.마지막주 (미정)
- **장소** 전주 (미정)
- **대상** 전주(인근)의 동역회 회원
- **문의** 02-754-8004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발표논문모집] 2016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돌아오는 봄,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주제**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 **일시** 2016.5.28.(토)
- **장소** 전주대학교
- **논문발표 신청접수 마감** 4/18(월) 저녁 7시
- **발표분과** 경제/경영, 교육, 문화예술,법학, 철학, 역사, 상담심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융합, 기독교세계관 등

※ 대학원생 논문발표는 오전에 진행되며, 발표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효영 간사)

04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신앙과 학문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 지속평가
2		
3		
4		
5		
6		
7	월드뷰 리더 모임	
8		
9	대학원생 모임(피정)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16년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신청마감	
19		
20		
21		
22		
23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면 공동발행	
24		
25		
26		
27	월드뷰 5월호 발행	
28		
29		
30		

손봉호

천생연분

어느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집밖을 나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내 : "이를 어쩌죠? 다리미 코드를 빼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남편 : "걱정 마. 나는 면도하다가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왔으니까 불 나지는 않을 거야."